

발전하는 미얀마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KOICA 무상원조사업을 중심으로-

배도찬 (裵道贊)

미얀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서울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2015년 11월 60여년만의 민주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민주정권을 창출한 바 있다. 외교부장관 및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얀마는 오는 2020년 11월 두 번째 민주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로힝야족 이슈 같은 어려움 또한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체제전환국 미얀마에서 지난 5년간 목도한 작금의 변화는 물리학의 쿼텀점프에 가까운 발전을 보여 왔다.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 각국의 노력과 그 중 한중일 3국의 유-무상원조는 이러한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자,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물밑 경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대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따라 4대 중점협력분야(공공행정,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무상원조 전담시행기관으로, 미얀마 민선정부가 출범한 2012년 떼인세인前 대통령의 개혁개방 이후 대미얀마 무상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중점협력국 지정과 맞물려 시작된 두 건의 대규모 플래그십 사업(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따르고자 했던 미얀마에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본뜬 MDI(미얀마개발연구원) 설립지원, 전 국민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인 미얀마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새마을운동)은 금년에 성공적인 완료가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한국의 대미얀마 무상원조사업의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배도찬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미얀마 양곤대학교 식물학과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협력요원/농업ODA전문가)과 미얀마 국립농업대학교(Yezin농대, Visiting Lecturer)를 거쳐 약 7년간 현지에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농업개발협력, 개도국의 기후대응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 등이다.

일시: 2020년 10월 20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